

국내에서... 해외에서... 건설 재능 기부로 나눔 실천

신예은 | 한국해비타트 홍보실 과장

나눔 실천도 시대에 맞게 진화

어느새 가을이 지나고 겨울,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다. 영하로 떨어진다는 날씨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추위로 고생하게 될까 염려가 앞서는 계절이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찜통더위로, 겨울에는 한파로 고생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집’에서 말이다.

겨울이 되면 각종 단체나 기관, 기업에서는 이웃 사랑을 전하기 위해 김장 김치를 담가 전달하거나 연탄을 날라주는 등 이곳저곳에서 나눔 행사가 벌어지곤 한다. 이맘때면 나눔에 대한 생각이 없던 사람도 마음이 너그러워져 올해가 가기 전에 봉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즘은 봉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나눔도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 금전 후원, 재능 기부, 근로 나눔 등의 형태로 나뉘어 평소에는 바쁜 직장인들도 각각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하곤 한다. ‘기부나 자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는 통계 결과처럼

해비타트 봉사자들도 오히려 수혜자보다 더 행복해 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일반 건축 봉사를 하기 힘든 겨울에는 재능 기부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능 나눔을 위해 사내 동아리, 동호회를 구성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각박한 직장 생활 속에서 나눔의 기쁨과 참여의 보람을 맛보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회사 문화도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를 바꿔 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건설업 특성을 살린 재능 기부

현재 삼성물산은 용인 지역의 노후화된 집을 고쳐주는 ‘에버하우스’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를 개선해주는 등 재능 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지난 3년 간 400여 임직원이 참여하여 총 85곳의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선물해 오고 있다. 특별히 시설이 낡아 겨울철 외풍이 심하고 난방이 잘 안 되어 추위에 노출된 주택이나 복지 시



삼성물산은 용인 지역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에버하우스'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설에 온돌을 설치하고 단열재와 유리창, 출입문, 전 등 등을 교체해 따뜻하고 깨끗한 곳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올해는 다른 시설까지 영역을 확장해 지역아동센터 3개소를 고치기도 했다.

모현반석지역아동센터 한성희 센터장은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너무 밝아졌다. 벽지, 창문, 장판, 전등까지 다 환해져서 그런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봉사하는 직원들이 벽화 그리기 등 디자인에도 참여하여 에버하우스 사업지에는 골목마다 집마다 예쁜 그림들이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수혜 대상자를 용인 에버랜드에 초대해 가족 나들이의 기회도 마련해 집이라는 주거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만의 즐거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도 의미가 깊다.

용인시 연근흙 씨는 “일단 집이 깨끗해지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게 되요. 예전에는 청소를 해도 티가 안나니까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애들이 학교를 가면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애들도 표정이 달라지고 많이 밝아졌는데, 사실 제일 많이 변한 건 나인 것

같아요”라고 미소를 띠었다. 이처럼 ‘에버하우스’ 사업은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봉사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진주시 명석면에 40세대 해비타트 마을을 짓는 후원사이자 봉사 파트너로서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하고 있다. 임직원 봉사자 중에서는 “집을 짓는 전체 공정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집짓기에 참여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2006년부터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우르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우르미’는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은 인근 사회복지 시설 등과 결연을 맺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우르미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임직원 참여와 더불어 대학생도 선발하여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봉사를 함께 펼쳐 나가고 있는데, 크고 작은 봉사를 함께해 나가며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학생 아우르미 봉사단은

건설 이야기 1 2 3

서민 주거 복지 향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사회 특화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의 주제로 나누어 대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회사의 지원으로 실행할 기회를 얻게 되어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다.

이 밖에 대한지적공사는 '행복나눔측량'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건축 봉사과 함께 지적 측량으로 재능 기부를 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지방의 건축가 모임들도 해비타트 집짓기에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재능 기부든지 봉사든지 본인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또한 그 나눔이 함께일 때 더 빛이 난다. 특별히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각 전문가들이 모여 아름다운 결과물을 낸 사례가 있어 덧붙여 소개하고자 한다.

방글라데시 슬럼 마을을 변화시킨

한국의 건설 전문가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마이멘싱 지역 곤드라과 마을은 위생과 주거 시설이 취약한 마을이었다. 마을에 살고 있는 590가구 중 540가구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거나 아예 화장실의 개념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슬럼 마을이었다. 제대로 놀 곳이 없어 아이들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온 오수가 고여 있는 웅덩이 옆에서 뛰어 놀았고, 엄마들은 그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 물로 몸을 씻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보다 못한 곤드라과 마을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 직원이 방글라데시해비타트를 찾아와 열악한

마을 환경을 전하면서 시작된 이 마을의 위생 개선 사업은 한국해비타트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 한아도시연구소, 그리고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연결이 되어 약 1년 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한아도시연구소는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온 회사로서 슬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충북대 건축학과 이병연 교수는 친환경 건축에 관심이 있어 현지에 적합한 건축 모델의 개발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은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일적인 측면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국해비타트는 기관의 네트워크를 살려 지역사회 담당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한국의 발전된 건축 기술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개발한 적정 기술이 현지에서는 낡은 기술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또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대나무와 흙벽돌을 활용하여 지은 본돈(Bondon) 커뮤니티센터 모습.

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함께’하여 현지의 니즈 반영하고

시공상 오류도 줄여

방글라데시에서는 대나무를 사용해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에 반감(주로 대나무를 사용해 임시 거처를 만들기 때문에 튼튼한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무와 흙벽돌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차분히 설명하자 주민들의 호응이 뒤따랐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압축 흙벽돌의 경우,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 중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적정 기술이다. 또한, 디자인과 시공 워크숍을 통해 현지 대나무 목수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간의 건축 기술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했다. 덕분에 두 나라의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한 건축 설계도가 완성되었고, 건축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을 적극 고용하여 해당 지역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을 주었다.

약 15개월에 걸쳐 완공된 커뮤니티 센터는 대나무로 만든 책상과 책꽂이, 실내에 빛이 가득 들어오도록 설계된 천장으로 모두가 환영하는 공간이 되었다. 게다가 화장실과 목욕 시설을 갖추어 무엇보다 심각했던 위생 환경이 개선되었다. 특히, 오픈된 공간에서 몸을 씻거나 용변을 봐야 했던 마을의 여성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시설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공간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학습 공간을, 어른들에게는 모임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유대와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이 커뮤니티 센터는 방글라데시어로 ‘함께’라는 뜻을 가진 본돈(Bondon) 커뮤니티센터로 명명되었는데, 이웃마을 사람들과 지역 정부에서 구경을 올 정도로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2015년 4월 19일에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이관해 커뮤니티 관리에 대해 위임하는 협약을 맺었다. 또한 주민들은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과 경제, 식수 위생에 관한 교육도 꾸준히 받기로 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세워진 만큼 지역사회가 주인이 되어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까지 소개한 것처럼 건설업이 지니고 있는 재능 기부는 실로 다양하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설계와 건축은 물론이고, 현장 관리와 감리, 기술 전파, 유지보수 교육 등 집짓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건설업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재능 기부 참여가 점차 확산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기관과 기관이 협력하거나 혹은 기관과 기업, 그리고 개인까지 협력하여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생각을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모여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스스로의 전문성을 심분 발휘한 재능 기부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올겨울에도 훈훈한 재능 기부 활동이 늘어나 매서운 한파를 견디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가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CERIK